

골든클럽 2020년 9월 골프대회



올해 COVID-19으로 인해 지난 몇달동안 골프모임을 하지 못하여 많이 섭섭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NY/NJ지역의 상태가 많이 호전되고 야외에서 하는 운동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으로 올해 첫모임을 아래와 같이 가질 예정입니다. 모두 32명이 신청해주신 이 모임은 사회적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는 즐거운 활동이 될 것입니다.

일시: 9월 3일(목) 12:00pm (11:00am 도착 요망)
 장소: Wallkill Golf Club
 40 Sands Rd, Middletown, NY 10941
 참가비: \$100 (Green fee, lunch/dinner 포함)
 특기: 각자의 기량과 선호에 따라 1부, 2부로 나누어 game을 진행하니, Senior tee group은 1부, Regular tee group은 2부로 신청해 주십시오.
 신청: 김정필 (201-965-7759 / jaypkim@keiusa.com)

서울대학교 뉴욕동창회 추계 골프대회

뉴욕동창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장학기금 모금 추계 골프대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작년 가을에 계획했었다가 우천으로 취소되었던 뉴저지의 명문 선셋밸리로 동문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이메일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일시: 10월 7일(수) 11:00pm (10:00am 도착 요망)
 장소: Sunset Valley Golf Club
 47 W Sunset Rd, Pompton Plains, NJ 07444

신청: 김정필 (201-965-7759 / jaypkim@keiusa.com)
 장학기금에 관하여는 뉴욕동창회 회장이며 장학위원장인 조상근 동문에게 문의 바랍니다.

골든클럽 가을 산행 안내



Covid19 사태로 외부 활동을 자제해 오면서, 사회적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이 보편화 되었습니다.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정부 지침과 Corona Virus 예방 준수사항을 염두에 두고, 다음과 같이 가을 산행을 계획하면서 관심있는 회원 가족들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각자 차량으로 운행하는 것을 전제로, 이번에는 행선지를 가까운 Harriman State Park로 하였으며, 점심 도시락도 개별 준비하도록 합니다

일시: 10월 21일(수) 9:00
 모이는 장소: PIP exit 4-5 중간 주차장
 산행지: Harriman State Park 5마일 정도
 준비물: 마실물과 점심 도시락 개별 준비
 연락: 홍종만 646-342-2667, hong1945@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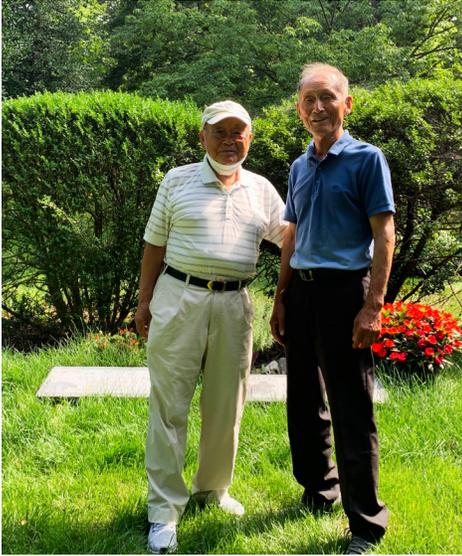


뉴욕동창회 2020년 송년회및 총회 안내

뉴욕동창회에서는 2020년 송년회및 총회를 전년과 같이 포트리에 있는 Double Tree Hotel Ballroom에서 개최합니다. 보다 다채롭고 흥겨운 만남의 광장을 계획하고 있으니 모두 참석하셔서 그동안 적조했던 만남을 회복하시고 새로운 해를 다짐하는 좋은 시간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위하여 협찬을 해주실 동문들의 도움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날짜: 2020년 12월 5일 (토요일)
 시간: 오후 5시 -10시
 서울대 뉴욕동창회장 조상근 드림

고 이세영 회원 1주기



故 이세영 회원 작고 1주년을 맞아 이준행 회장님 모시고, 장지를 방문하여 고인을 추모 하였는데, "살아 계실 때 손잡고 거닐며 정답게 이야기 나누지 못한 것"이 제일 아쉽고 마음에 걸린다고, 후배 회원들께 충고해 주셨습니다.

SNUPPI 첫 골프회동



SNUPPI는 SNU Premier Players Invitational의 약자로서 골프, 바둑, 포커를 즐긴다 해서 '골바보'로 불리기도 한다. 금년은 Covid-19 탓으로 미루어 오다 8월 8일 (토)에 Sunset Valley 골프장에서 첫 모임을 가졌다. 이강홍, 권영대, 김문언 동문은 고사했고 5명이 신청했으나 4-some을 맞추기 위해 이대영 동문이 양보하여 곽선섭, 유무영, 이승익, 김태일 동문이 골프를 즐기고 식사도 같이하였다. 아쉽게도 바둑과 포커는 못하고 훗날을 기약하고 헤어졌다.

곽선섭 (공대61)

홍종만 부회장 Devil's Tower 등반



홍종만 부회장은 8월에 뉴욕한미 산악회와 함께 자동차 편 (편도 34시간)으로 와이오밍주에 있는 Devil's Tower를 방문하고 돌아오며 변함없는 노익장을 과시하였다.

신입회원을 환영합니다.

오용호 동문(의예과 66년입학)

(T) 201-951-3484

(E) yonghoauh@gmail.com

Yong Ho Auh

50 N. Virginia Ct

Englewood Cliffs, NJ 07632



9월 생일을 축하합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중. 고교 뉴욕지역 동창회 겨자씨 장학회 장학생 모집 안내

겨자씨 장학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장학생을 모집하오니 골든클럽 회원 또는 서울대 동문의 손자 손녀들에게 알려 많은 응모가 있기를 바랍니다.

- 응모 자격: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여자 중학교, 부설 남자 중학교 및 부설 고등학교 출신자로서 미주 동부지역 (NY, NJ, CT & Maryland) 주의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중인 학생
- 모집 인원: 00 명 * 장학금액: \$1,000 (1인당)
- 제출서류: 신청서, 중.고교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사진, Essay
- 원서마감: October 15, 2020
- 문의 및 신청서 교부: Hae Min Chung (551)574-2015 haeminchung@gmail.com
- 참고사항: 과거에는 서울사대 부속 중.고등학교가 한개의 학교로 6년제이던 것이 이제는 세계의 학교로 분립되었고 명칭도 바뀌었으며 또한 학교 캠퍼스도 세 곳이 되었으며, 본 장학회에서는 매년 본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남. 여 각 1명(학교장 추천)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음.

뉴욕지역 동창회 회장 오 시 국

겨자씨 장학회장 정 해 민



곽승용 (의예65)

김광현 (미대57)

송학린 (법대59)

이행순 (미대60)

최순채 (의예60)

홍예경 (가족)

서울대 미주동창회 제 29차 평의원회의 성료

뉴저지에서 사상 첫 온-오프라인 연결 동시개최...
한국-호주-미 전역 의원 참여 열띤 토의



제29차 미주 평의원 대회를 마치고 참가자 함께 기념촬영

제29차 미주 평의원 회의가 지난 8월 21일에서 23일까지 NJ 포트 리 Double Tree Hotel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코비드 규제에 예년 120여 참석인원에서 줄어 30여명이 참석하였다. 하지만 전 행사일정을 유튜브 라이브 방영, Zoom 등 온-오프라인으로 전 미주는 물론 한국과 호주까지 연결, 전세계 서울대동창들이 함께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서울대 동창회 발전방향을 나눈 특별한 대회가 되었다. 이번행사는 미주동창회가 첫 시도한 회의형식으로 Covid-19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이었기도 했지만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성공적 평의원 대회로 기록될 것이다.

미주동창회 신응남 회장은 환영사에서 “미주 동창회의 연례회의가 역대 회장단들의 헌신적인 수고로 지금까지 30년 동안 개최해왔다. 한 사회와 국가가 자랑하는 문화를 세워가는 것은 역경 속에서도 그들이 가꾸고 쌓아올린 전통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미주 동창회의 전통과 문화를 계승 보존하기 위해 최선의 선택을 통한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이 대회를 개최하였다”며 온,오프라인을 통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21일 시작된 세미나에서는 하버드의대 세계적 석학 김광수 교수와 일리노이대 김주형 교수가 참석, 각각 ‘맞춤형 줄기세포치료: 어디까지 왔나’와 ‘로봇은 인간을 닮아야 하는가’를 주제로 동문에게 현재 주목받는 분야의 핫이슈를 전달했다. 이어 이어진 패넬토의에서는 ‘한반도의 미래를 말하다’를 주제로 오인환, 백순, 이항렬, 류재풍 박사, 그리고 민병갑 교수, 정태영 논설위원이 참가, 열띤 토의를 펼쳤다.

다음날 22일에는 1차년도 브레인네트워, 회보 편집위원회 등 사업보고 및 감사보고, 연영재 15대 사무총장 인준이 있었다. 특별히 온-오프라인으로 이어진 평의원 투표로 각지역 지부분담금 조정, Century Foundation기금 손재욱 위원장 추대 등 중요한 사안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그동안 서울대가 국가발전에 기여해온 주요 인재를 양성하고 소중한 지식을 제공하며 대한민국 최고의 지식공동

체로서 그 소임을 다해왔다”며 “이러한 서울대의 성장과 발전은 동문 여러분들의 모교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특히 미주 동문의 헌신과 사랑이야말로 서울대가 쉽없이 전진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며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화상으로 참여한 이희범 한국 서울대 총동창회장은 직접 참석할 수 없는 아쉬운

마음을 전하며 “1991년 출범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이렇게 성대한 행사를 이어온 미주동창회의 저력에 경의와 박수를 보낸다”며 신응남 미주동창회장을 비롯해 미주 동문 모두의 헌신과 사랑에 감사를 전했다.

함께 온라인으로 참여한 호주총동창회 김정인 회장은 평의원회의 개최를 축하하며, 적극적인 지역사회 참여와 봉사로 모교의 위상을 높이길 기원했다.

이어 오세정 총장 공로패를 손재욱(13대 회장), 오홍조(7대 회장), 윤상래(14대 회장), 워싱턴 DC지부에 수여하고, 이희범 총동창회장 표창패를 이강원(뉴잉글랜드지부), 손대홍(뉴욕지부) 전 동창회장, 홍종만 골든클럽 임원 등 9명에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재욱(13대 회장, 왼쪽)동문에게 오세정 총장 공로패를 수여하는 신응남 회장



축하 오페라 갈라 콘서트 4중창(왼쪽부터 유영광, 김성욱, 김희재, 김기웅)

21일 전야제에서는 바이올린 김희은, 첼로 서지원, 피아노 장현주 등 후배 동문들이 트리오 콘서트로 행사 분위기를 고조시켰으며, 22일 축하만찬은 광상희 원로시인의 축시 ‘서울대여, 자유와 진리의 용사여’ 낭독과 오페라 아리아 갈라 콘서트로 장식되었다. 바리톤 유영광, 테너 김기웅, 김성욱, 김희재 동문이 ‘희망의 나라로(현제명 작곡)’를 남성 4중창으로 힘차게 불러 평의원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전세계에 알리며 행사를 마무리지었다..

[기사: 서울대미주동창회 편집부]

Isaias 태풍에 따른 정전사태를 맞고

김병순 (상대82)



8월3일부터 4일까지 뉴저지 및 뉴욕 지역을 휩쓸고 간 태풍 Isaias 로 인하여 2일간의 power outage를 경험하게 되었다. 물과 개스는 나오는데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더운 날씨에 고생을 하게되었다. 가장 큰 고통은 에어컨이 가동되지 않아 밤에 잠을 자다가 더워서 몇 번 일어나 잠을 설친 것이다. 그리고 TV 및 internet이 되지 않아 퇴근후 저녁에 심심하게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 또한 괴로웠다. 그외 전화기를 포함하여 전자기기의 충전을 위하여 여기저기 차를 타고 나가야 하는 것 그리고 정전이 끝난 후 냉장고가 작동하지 않아 상한 음식들을 내다 버리는 것도 가슴아픈 일이었다.

2012년 태풍 Sandy 때의 아픈 기억을 떠올렸다. 그 때는 정전기간이 더 길었고 계절이 한겨울은 아니지만 뉴저지 포트리에에서 의 11월은 제법 추운 시기였다. 맨하탄의 직장도 문을 닫은 상황이어서 일주일 정도의 기간을 정전상태에서 집에만 있었다. 그 때는 아무 하는 일이 없이 우두커니 집에만 있는 것이 가장 괴로운 일이었다. 추운 것은 옷을 두텁게 입으면 해결이 되어 그 중 덜 힘들었다. 자동차 연료를 구하기 위하여 주유소에 길게 줄을 서야하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많은 사람들의 business 및 개인 재산상의 피해가 심하여 보험으로 커버를 하였어도 금전적인 손실을 피할 수는 없었다. 정전시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많이 듣는 complaint가 미국은 이런 정전 사태시에 아주 느리게 복구하니 정말 답답하여 그런 면에서는 한국에 비하여 후진적이라는 것이다. 한국의 서울 등 대도시 및 도시주변지역에 살았던 사람은 태풍을 만나도 장기적인 정전사태를 경험하지 않으니 그런 불평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미국은 면적이 한국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넓고 한정된 인력이 넓은 지역을 cover해서 복구 및 보수작업을 하려면 시간과 노력이 그만큼 많이 소요되니 당연히 빨리 복구되기가 쉽지 않기에 한국과 비교하여 후진적이라는 평가는 섣부른 감이 든다.

정전시 주위 사람들로부터 듣는 또다른 complaint는 부자동네는 빨리 고치고 후진 지역은 더디게 보수된다는 것이다. 시스템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가정하면 복구 및 보수 작업은 이렇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Cover하는지역의 utility 직원들이 나무가 넘어 지던지 물에 잠기게 되는 등의 사고를 모두 접수하여 그 정보를 supercomputer에 입력하고 최고 다수의 피해자 지역 등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 supercomputer로 하여금 각 지역별 복

구 시기를 정하게 하여 보수인력이 그 일정에 맞추어 움직이도록 하여 순차적으로 복구하게 하는 것이다. 전기망이 거미줄 처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과 사고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각 가정의 online account에 예상 restoration time을 제시하여 주는 것을 보면 사람이 수작업으로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든다. 합리적인 그런 복구시스템이면 가로수가 넘어지는 등의 사고 지점이나 전기 연결망의 상황에 따른 sequence에 맞추어 복구되니까 사람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는 적어서 빈부 격차에 따라 복구시기가 결정되지는 않으리라 예상된다.

정전사태를 일으키는 가장 큰 주범이 가로수 및 주택내 나무가 바람에 의해 넘어지는 경우일 것이다. 가로수는 사람들에게 자연친화적으로 만들어 산소공급 및 산사태 방지 등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많은 것이지만 태풍시 넘어져 전선을 끊어 정전을 일으키는 것은 사람들을 귀찮게 한다. 가로수 및 주택내 나무가 넘어졌을 때 치우는 책임 소재는 인도를 기준으로 결정된다고 한다. 인도 안쪽의 나무인 경우는 주민 개인의 책임이고 인도 바깥쪽의 나무는 지방 정부가 치우게 되는 것이다. 주민 개인의 책임일 경우 치우는데 상당한 금액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어 부담스럽다.

정전이 되었을 때 우리는 발전기를 구입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발전기는 비상시 필요한 전력량과 연료개소용량 및 가격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하겠지만 Harbor Freight Tools 나 Home Depot 에서 실물을 구경하는 것도 즐거운 구매에 도움을 줄 것 같다.©

노년에 꼭 다니고 싶은 대학

요즘 시니어들 사이에 노년 생활을 대학에 비유한 말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서울공대": 서럽고 울적해서 혼자 공원에 가는 것

동네 경로당에 나가면 "동경대"

부부가 경로당에 나가면 "부경대"

전철과 국철로 시간을 보내면 "전국대"

그럼 "연세대"는 무슨 뜻일까요?

바로 '연금으로 세상 구경하면서 노년을 보내는 것이랍니다.

고상하게 여행을 다니면 "고려대"

외국여행 다니며 국격을 높이며 어린이처럼 즐겁게 대접하고 대접받으면 "외국어대"

서로 위로하고 강하게 살면 "서강대"

건강하면서 국민연금으로 살면 "건국대"라고 한답니다.

노후에 어느 대학에 다니고 싶으신지요?

한국의 자가격리(自家隔離) 경험

손대홍 (미대 79)

지금 세계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였고, 지금의 세대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하였던 코로나바이러스(COVID-19)라는 재앙 앞에서 혼란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었던 여행, 특히 해외여행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을 포함해서 중국, 베트남 등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해외로부터의 입국자에 대한 관리를 엄중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스로도 많이 소개가 되었지만, 한국 역시 미국과는 달리 사태 초기부터 엄청난 비용과 인력을 쏟아가며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노력해 왔고, 따라서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하여 확진자와 사망자가 적고 치명률도 낮은 편이라 한국 정부가 어느 정도는 성공적인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국 정부의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대응 방식을 칭찬하고 부러워하는 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는 비판적인 이야기도 일부 국가의 학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것을 뉴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중국만큼의 무지막지한 통제는 아니지만, 보다 많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라는 공익(公益)을 위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는 사익(私益)을 다소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 저는 솔직히 어느 쪽이 더 정당성을 갖는지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제가 한국 출장을 통하여 경험한 한국 정부의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대응방식을 소개해 드리고자 하니 골든클럽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4월 12일 JFK를 출발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부터 너무나 많은 것들이 바뀌어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공항의 라운지도 폐쇄가 되었고 공항은 쓸렁하다는 표현이 옳을 정도로 이용객도 없고 많은 상점들은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항공기에 탑승을 한 뒤에 펼쳐지는 광경 또한 너무나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승객과 승무원들

은 마스크를 착용했고 승무원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비닐이나 라텍스 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모든 좌석은 가운데를 비우고 승객을 앉도록 하였으며 사람들은 식사를 거의 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가능한 마스크를 내리지 않고 화장실에 가지 않기 위해서 물을 마시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대한항공만 천 번을 넘게 탑승했지만 그렇게 무거운 분위기의 비행을 해본 적은 처음



복덕위에 방호복으로 중무장하고 방역작업을 하고 있는 관리요원

이었습니다. 출발 몇 시간 후 제 뒷자리 승객의 상태가 이상하다며 빨리 좌석을 옮기라는 승무원의 말에 정신이 없었고 혹시 하는 불안 속에서 인천공항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을 하니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모습이 눈 앞에 펼쳐지고 있었는데, 10여년 전에 보았던 영화 Contagion과 같은 광경이었습니다. 하얀색의 방호복을 입고 고글에 긴 장갑을 착용한 관리 요원들이 도착한 승객들을 줄 쳐진 좁은 통로를 따라 견도록 했고, 체온 측정과 질문을 통해 이상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즉시 별도의 장소로 데리고 갔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몇 번의 확인을 거치고, 마지막으로 휴대한 셀폰으로 전화를 걸어 번호를 확인하고, 24시간 자가 격리 중 상태를 보고해야 하는 앱을 자신의 셀폰에 깔고 입국 절차를 마쳤습니다. 밖으로 나와 자신이 가고자 하는 지역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대기하고 있다가 각 지역 보건

소로 가는 해외입국자 전용 버스에 탑승하게 되었는데, 화장실을 가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구청의 보건소에 도착해서 즉시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를 받고, 구청에서 준비한 대형 밴(Van)을 타고 예정된 숙소로 도착하여 드디어 2주간의 자가격리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의 경우는 체류할 곳이 있었지만, 한국 내에 주소가 없거나 혼자 자가격리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의 경우는 정부에서 지정하는 호텔에서 하루 10만원의 비용을 내며 2주간의 자가격리를 해야 하고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는 공항에서 최종 입국 전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호텔에서는 방 밖으로 나갈 수가 없고 하루 3번 도시락으로 식사를 제공하며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도 제공된 감염물 봉투에 담아 2주간 방밖으로 버릴 수 없다고 합니다.

하여간, 그렇게 저의 자가격리는 첫날을 보내고 다음 날 아침 9시 구청으로부터 음성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셀폰에 설치된 자가격리 앱을 통해서 체온과 기침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였는데, 그 앱은 단순히 제가 정보를 입력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셀폰의 GPS를 통하여 24시간 저의 위치를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저도 평생 처음 해보는 일이라 자가격리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미국과 한국의 단어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자신의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인데, 미국을 비롯한 영어권에서는 self-isolation과 self-quarantine을 혼용해서 쓰는 것 같은데 찾아보니 이 또한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Isolation은 확진자를 비확진자로부터 분리시킨다는 의미이니 확진자를 병원에 입원을 시키거나, 가정 등의 공간에서는 확진자를 다른 사람들과 분리하여 감염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의미입니다. Quarantine은 확진자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하여 움직임을 제한

회원 명단 (103명 / 2020-08-15)

강교숙	김영덕	손경택	유무영	임도혁	최진영
강에드	김영만	손대홍	윤현남	임호순	최철용
강영선	김우영	손옥화	이강홍	장동만	추재욱
계동휘	김익성	송근수	이국진	고애자	한영수
곽상준	김인형	송웅길	이기덕	정도현	한용오
곽선섭	김재경	송현자	이대연	정수일	한태진
곽승용	김정필	송학린	이대영	정해민	허용웅
구달회	김종율	신진식	이범선	조달훈	홍사만
권영대	김창수	이정자	이수호	조승자	홍정표
권정덕	김태일	신원철	이전구	조상근	홍종만
권태진	김현중	신응남	이정필	주상선	홍예경
김광수	노용면	양인회	이종대	주재양	홍지복
김광현	민준기	오 성	이종석	진봉일	
김동건	박기환	오순문	이준행	최구진	
김병순	박희병	오유섭	이준희	최병우	
김문경	배상규	오용호	이용대	최수용	
김분언	성기로	오인석	이행순	최순재	
김상만	손갑수	우규환	이흥빈	최준희	

골든클럽 2020년 행사 일람 (Updated: 2020-08-15)

1월	1/26~2/1	Winter Golf Trip, Palm Beach, FL, 31명 참가
3월	28 (토)	신년교례회 - 취소
4월	16 (목)	Opening Golf Outing - 취소
	30 (목)	Hiking, Harriman State Park -취소
5월	13 (수)	동창회 춘계 골프대회 - 취소
6월	11 (목)	Golf Outing - 취소
	24 (수)	Picnic, Pizza Party -취소
7월	9 (목)	Golf Outing - 취소
	22 (수)	문화, 예술, 정원 등 경승지 방문 - 취소
8월	6 (목)	Golf Outing -취소
	20 (목)	BBQ Picnic, Westchester County Park -취소
9월	3 (목)	Golf Outing - Wallkill Golf Club
10월	7 (수)	동창회 추계 골프대회 -Sunset Valley Golf Club
	21 (수)	Hiking
	29 (목)	Season-off Golf Outing
12월	5 (토)	뉴욕동창회 송년회및 총회
2021년		
1월	27~31	Florida Golf Trip
3월	27 (토)	신년교례회

2020년 연회비 납부 명단 (64명 / \$6,400 / 2020-08-21)

강에드	김영만	손경택	오 성	이종대	최순재
강교숙	김우영	손대홍	오순문	이종석	최준희
계동휘	김인형	손옥화	오용호	이 준	최철용
곽상준	김재경	송근수	오유섭	이준희	한용오
곽선섭	김종율	송웅길	오인석	이행순	한태진
곽승용	김현중	송현자	우규환	임호순	홍사만
권영대	노용면	송학린	이강홍	정해민	홍정표
권정덕	박기환	신원철	이국진	조달훈/	홍종만/
김광현	박희병	신진식/	이범선	조승자	홍예경
김병순	배상규	이정자	이용대	주상선	
김상만	손갑수	양인회	이정필	주재양	

2020년 후원금 납부 명단 (16명 / \$5,900 / 2020-08-15)

곽선섭100	손경택1,000	임호순300
곽승용200	송학린500	정해민500
권정덕200	우규환200	최철용300
김광현100	이강홍300	한태진500
김종율200	이준행1,000	
성기로300	이행순200	

골든클럽 컴퓨터연구원 강의



뉴욕 매주 화요일 / 오전 10시 - 오후 1시
 뉴욕새힘장로교회
 47-33 Little Neck Pkwy, Little Neck, NY 11362

뉴저지 매주 월요일 / 오전 9시 30분 - 오후 1시
 버겐카운티 장로교회 교육관
 100 Rochelle Ave, Rochelle Park, NJ 07662

공적집회가 허용될 때까지는 Zoom Video 강의로 대체합니다

골든클럽 회원 귀하

아래 회비 납부 양식을 Check (payable to **SNUAA**)와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 SNUAA 261A 4th St., Palisades Park, NJ 07650
 (T) 646-342-2667 (E) hong1945@gmail.com

골든클럽 회비 납부 양식

성명: (한글) _____ (영문) _____ 생년월일: _____

단과대: _____ 학과: _____ 입학년도: _____ 졸업년도: _____

전화번호: _____ Email: _____

- 입회비 \$200
- 연회비 \$100
- 후원금 (\$ _____)

주소 (Home): _____